朝鮮日報
夕刊 十九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火災頻頻!

一

今年겨울은 추위가 酷烈한 關係도 잇는지 모르나, 京鄕을 通하야 例年에 볼수 업스리만한 程度로 火災가 頻頻함을 본다。火災는 此를 社會全體로보면 富의 空失이오, 個人으로보면 家產의 蕩散이다。社會로 보아 이만치 退縮되는 일이 업고, 個人으로 보아 이만치 不幸한 일이 업다。이러케 重大한 關係가 잇는지라, 世界 어느나라를 勿論하고, 火災를 故意로 내는者, 卽, 放火犯에 對해서는 다른 犯罪에 比하야 特히 嚴重한 刑罰을 課하야 此種의 犯罪行爲의 根絕을 期하는것이다。勿論, 여기서 말하고저 하는것은 故意의 放火가 아니요 過失로 因한 出火에 關한것이나 비록 過失로 因한 火災라고할지라도 一旦, 火災가 起한 後에 잇서서의 結果를 보면 그것은 放火와 꼭 가튼 災禍를 自己自身又는 隣人社會에 끼친다는 一事는 누구나 各自銘心할바가 아니면 안될것이다。

二

사람은 흔히 天災地變又는 不可抗力의 災禍라하야 火災를 저 水災、旱災、震災等의 災禍와 同列에 두고저하는 傾向이 잇슴을 본다。그러나 이것은 重大한 錯覺이니、이에 對하야는 누구나 徹底한 再認識又는 反省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될것이다。水災, 이것은 人力의 所致가 아니요, 旱災, 이것은 사람의 任意로 할배가 아니요, 震災, 이것은 人知의 敢及할배가 아니나, 火災에 잇서서는 故意의 放火가 업고, 過失에 依한 出火가 업스면 제 아모리 이러나려야 이러날수 업는 災禍다。故로 水災, 旱災, 震災等과 火災와의 兩者는 根本的으로 本質을 달리하는者다。前者는 確實히 今日의 程度의 人知를 가지고는 不可抗力에 부칠수박게 업는 일이나, 後者, 卽 火災만은 社會的制裁와 各自의 注意만 徹底하면 斯種의 災禍는 우리人類社會로부터 完全히 驅逐할수잇는것이다。따라서 이 一點은 各自의 가장 銘心을 要한배가 아니면 안된다。

三

그러면 出火에 對한 注意가 그러케 어려운것이냐하면 그런것도 아니다。此를 一言으로 덥허 말하면『불操心하시요』의 一言을 一社會의 各個人이 이저버리지 안코 잇는一事로서 足하다。換言하면 이 一言에 對한 各自不忘은 出火防止의 第一要諦다。京城消防署의 統計에 依하면 過失出火가 第一位요, 부억(竈)出火가 그次요, 火爐出火가 又其次요, 煙草에 對한 不注意出火가 第四位로서 四者로 因한 出火件數는 全出火件數의 八九割을 占하고 잇다。이제 萬若, 各自가『불操心하시요』의 一言을 이저버리지 안코 그腦裏에 담어두고 잇다고하면 溫突房에 煙氣가 날때에 구먹이 뚜러진與否를 살피는것, 부억에 불을 때고서 뒷불을 살피는것, 外出時와 就寢時에 火爐불을 處置하는것, 담배불을 操心하는것等은 天痴가 아닌以上, 三尺童子에게도 可能한 일이 아닐가보냐?요

마는 注意의 不足으로 因하야 一年 五六十萬圓의 富를 灰燼에 되엇이며, 이 아니 寒心한 일 京城府一府만 臨判해 말해도 바치고 잇스니, 이 아니 遺憾이냐?

不信任案上程前에 斷乎히 議會解散
三相施政演說直後解散斷行
閣僚의 强硬態度一致

【東京電通電話】再開議會에 對한 政友會의 最後的 態度決定은 十九日로 너머가게 되엿는데 政府는 大體로 豫定에 總括的不信任案을 上程하기로 決定할것으로 보고 政府로서는 二十一日 午後一時 再開衆議院本會議에서 首相、外相、藏相의 施政演說直後 政友會의 不信任案上程前에 解散을 斷行키로 內定하엿다 그리고 政府는 議會解散直後 解散의 理由에 關하야 聲明을 發하기로 되엿는데 聲明內容에 關하야는 現政府의 性質上 政友會를 明白히 野黨視할과 如한字句를 쓰는것은 조금 不穩當하다고도 總選擧後 政友會가 比較的多數를 獲得한時에 政權의 歸趨問題도 招來할念慮도 잇슴으로 結局簡單히 左의理由를 發表할模樣이다 政府는 擧國一致를 標榜하고 內外 諸般의 事態에 當하고잇든바 現下 政治狀態는 그圓滿한 遂行을 妨害하는바 잇고 玆에 衆議院의 解散을 奏請한다 卽 現在의 政友會가 總括的 不信任案으로써 擧國一致에 反對할態勢에잇는以上 解散치아니치못할言를 明白히하는 一方現內閣은 總選擧에 際하야도 政黨政派에 超然한것임을 表示하려고하고잇다 又政府는 政友會의大勢가 總括的不信任案에 傾倒하고잇는以上 機先을 制하야 解散할方針을 取하는것은 閣內의意見도 大體一致되고잇슴으로 二十一日再開當日前에 臨時閣議를 開催할必要는업다고하고잇다

結局總括的으로 不信任案提出乎
國體明徵上奏決議案내걸고
久原氏一派依然不讓

【東京電話同盟】政友會院內外總務會는 十八日午後八時 懇談會를 再開하고 一、國體明徵上奏決議案으로할것인가 一、總括的不信任案으로할것인가에 對하야 隔意업시 懇談을 遂하엿스나 兩者의 主張이 對立되여 서로 讓步치안키때문에 同十時懇談會를 中止하고 議事에 드러가 久原房之助氏를 座長에 推擧하고 協議하엿스나 依然讓步하지 안음으로 久原氏는『上奏案으로하든가 總括的不信任案으로하든가 現內閣을 不信任한다는것은 總裁의 演說에 明示되여잇슴으로 宣言及總裁의 演說을 먼저 決定하고 然後에 單獨上奏案으로하든가 總括的不信任案으로하든가는 十九日 午後二時부터 다시 總務會를 열고 協議함이 如何하냐고 提議한바 生田氏는 斷乎 反對하엿슴으로 又復 兩者의 激論을 惹起하야 午後十二時에 島田氏로부터『宣言及 總裁의 演說을 決定하든가 十九日로 延期하든가 座長의 裁斷에 一任한다』는 宣言을 하고 異議업시 久原氏는 全部를 十九日로 延期하야 同日午後一時 芝三緣亭에서 總務會를 續行하야 黨의方針을 決定하기로되엿는데 結局은 總括的不信任案을 決定하고 二十日 總會에서 黨議를 決定하여가지고 二十一日 再開議會에 臨하게될것이다

伊에戰況畵報 一
寫眞上은 過般伊太利軍이 마카레를 占領할때에 마카레의 住民들에게 白旗를들니우고, 땅시스트式擧手禮로 伊軍을 맛게하는光景, 下는 山岳地帶를 疾驅하는데 驚異的인效果를 나타낸 伊軍의 小型탕크

解散必至를豫想 實行豫算編成
不足分은追加豫算으로提出
大藏省에서발서準備

【東京電話電通】大藏省에서는再開議會時節의 解散必至를 豫想하고 벌서부터 解散後의 實行豫算編成에 對하야 準備를 進行하고잇는데 이미 開議의決定을 어든 十一年度豫算은 現下時局에 鑑하야 緊急한 經費만을 計上하엿슴으로 假令 解散에 依하야 豫算이 不成立되드라도 實行豫算에잇서서 不足한 經費는 總選擧의 特別議會에 追加豫算을 提出하야 이를補充하야 實質的으로 成立된豫算과 다름이업는 內容을 가추게하기로 方針을 取하엿다 卽解散時에 잇서 豫算案의 處分方法을보면 大要 左와如하다

一、衆議院議員總選擧에 要하는經費二百七十萬圓餘는 今年度第二豫備金殘額四百萬圓中에서 支出할것
一、各地災害對策에 要하는 今年度追加豫算二千數百萬圓은 그一部를 第二豫備金의 殘額及 前年度剩餘金四百三十萬圓餘에서 支出할것
一、그리고 不足한 經費에 對해서는 憲法第七十條의 緊急處分에 仰할것
一、實行豫算編成에 關하여는 解散直後의 閣議에서 그編成方針을 決定하고 今年度末까지에 그編成을 終了할것
一、實行豫算은 憲法第七十條에 則하야 前年度豫算을 踏襲하기로 되여잇슴으로 時局에 鑑하야 不足하는 經費는 追加豫算으로 總選擧後의 特別議會에 提出할것
一、法律案에 關하여도 豫算에 附隨하는것은 모도 特別議會에 提出하야 그協贊을求할것

英皇帝御容態 危險狀態陷入

【倫敦十八日發同盟】英帝조지五世陛下의 御容態는 十八日正午以來若干少康하신듯하나 依然重態의域을 不脫하고 某高官은 十八日夜『今後四十八時間以內에 危險狀態에 陷할는지도 모르겟다고 憂愁하는 表情으로말하엿다 侍醫는 酸素吸入으로 氣力恢復을 企圖하고잇는데 十七日以來酸素의消費額은 相當한分量에 達하고잇는모양으로 藥局에는 吸入用酸素가 準備되엿다

政友會大會 二十日에開催

【東京電話同盟】政友會는 再開議會에 臨할 態度方針을 決定키爲하야 二十日午後二時부터 本部에 黨大會를 開하고 鈴木總裁以下幹部、所屬議員 및 地方代議員 一千餘名이 出席하야 島田久原總務를 推薦하고 松野幹事長으로부터 會務報告決議를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다음 常議員(三十名)의 改選을 行한後 鈴木總裁가 議會에 臨할 方針을 明白히하야 黨員의 激勵와 同時에 午前十一時부터 總裁招宴에 臨하기로 되엿다 午後一時부터 議員總會를 開하고 宣言決議案의 承認을 求하고 黨大會에 關한 諸般準備에 對하야 協議할터이다

라발內閣難局逢着 急社黨支持喪失로

【巴里十八日發同盟】에리오無任所相辭任決定에 뒤니여 레니에藏相, 본네商相, 베르트랑海事相, 파가논內相, 모보암恩給相等 急進社會黨出身閣僚는 十八日緊急會議를 開催하고 에리오無任所相의 心境에 對하야 協議하는同時에 急進社會黨執行委員會에서 對策을 協議하엿다 席上에서 에리오無任所相은 辭職하기까지의 經緯를 說明한後 急進社會黨의 首領에도 立候補하지 안는다는 言을 誓言하엿다 에리오無任所相이 立候補를 辭退하면 執行委員會에서 左派의 領袖달라디에氏가 黨首領에 推戴될것은 旣定事實이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執行委員會에서는 라발內閣의不信任及 黨出身閣僚의 撤回를 決議하게되리라고 觀測됨으로 라발內閣은 下院의 第一黨急進社會黨의 支持를 喪失하게되여 重大難局에 逢着할 形勢이다

英佛이協同하야 中國共軍防衛?
安南、緬甸方面에의影響때문
外務省에드러온情報

【東京電話同盟】四川省을侵入한 共產軍의一部가 東漸하야 內蒙古로부터 外蒙에로의 連絡을 目指하고 一部는 甘肅으로부터 新疆에 通하는 赤化路의 建設을 圖하고잇는데 北中防共戰線의 成立도 右에 對應할 應急處置라하야 注目되여잇든바 其後 共產軍의 一部賀龍部隊는 貴州로侵入하야 雲南을窺하고 氣勢를 보이고잇서 佛領印度支那 緬甸 印度에對한 赤化의 脅威를 防止하는터 英佛兩國政府의 防共戰線에 새로운 脅威를 加하려하는 新事態를 誘致하게되엿슴은 注目되는바 一部에서 外務方面에 到達한 共產軍의 動勢는 大要左와如하다

一、中央軍의 討伐로因하야 湖南에서 貴州로 進入한 賀龍蕭克共產軍의目的은 四川에잇는 朱德徐向前軍의 成都挾擊에 策應하야 貴州의 省城貴陽을 奪取하려하는것으로 그 時期는 二月이라고傳한다 賀龍蕭克共產軍이 貴陽占據後如何한 方策을 取할는지는 東入瀨되여잇다
一、一說에는 賀龍蕭克共產軍은 貴州에 停止하기를 잘거하지안코 西行하야 雲南北部를거처 揚子江을 건너 四川에入하야 榮昌으로부터 北上하야 朱德徐向前軍과 合流하리라고 傳하엿스나 다시 貴州雲南을 奪還한後 멀리 佛領印度支那緬甸印度를 窺할意圖라고 傳하야 同地方을 脅威하고잇다

000130

軍縮代表一行 本月末마르세이유出發

【倫敦十八日發同盟特派員發】永野全權以下日本代表部一行은 本月三十日마르세이유出帆의 箱崎丸으로 歸國途上에 올나 三月六日神戶에 到着할豫定을 決定하얏다

世界短史

◇軍縮會議決裂

倫敦軍縮會議는 日本의共通最大限方式과 英國의質的制限案의 對立으로 難航의 難航을 繼續하드니 마침내 十五日 第一委員會에서 日本代表가 最後로 自國의 主張을 反復說明하엿스나 英米佛伊를 筆頭로 英國植民地諸代表로부터 反對를 맛나게되여 드듸여 豫定한대로 軍縮會議脫退通告를 發하게되엿다 英米佛伊四個國은 日本脫退後 四個國만이라도 會議를 繼續하야 協定을成立식히려하나 그러나 右協定의 實效는 今後 日本海軍의 動向如何에 依存될것임으로 四國會議라는것은 單純히 會議決裂의 責任을 日本에 돌니는데는 效果를 나타내일는지는 모르되 眞正한 軍縮實現에는 何等效果를 期치못하리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列國의反響

日本代表團의 脫退通告는 各國에 深刻한反響을 나리고잇는바 右는 將來列國海軍의 動向을 豫示하는 重大示唆가 아닌가 思惟된다 이제 列國의 反響을 記하면 英國은『日本案의 受諾은 自殺行爲와 如하다』하야 英國國策의 將來를 憂慮하고 잇스며 米國은 日本代表가 脫退하드라도 四國會議에 參加하야 四國協定成立에 努力하겟다 하나 日本의 海軍擴張을 考慮하야 保留條項을 設할것이라하며 中國言論界는 建艦競爭의必至, 太平洋防備制限의 無效, 日英米三國對立의 激化等을 豫測하고잇다

옵저버派遣

日本脫退後의 第一回英米佛伊四國海軍會議는 日本에 對하야 옵저버를 招請하기로 決定하고 正式招請狀을 發하엿는바 十七日 日本代表團은 岩下少將、藤井代理大使를 옵저버로 第一委員會에 出席케하기로하엿다 그리고 一時는 四國會議에 獨蘇兩國도 招請하야 六國會議를 成立식히려하엿스나 獨逸은 正式招請을 發하기도前에 不參加를 表明하게되엿슴으로 結局 獨蘇兩國의 招請은 呼聲에 그치고말지안을가 觀測된다

도로에서大激戰

十七日羅馬電에 依하면 伊太利軍은 五日에 亘하야 도로에서 大大的 反戰을 行한結果 에디오피아軍에 莫大한 損失을주어 十七日夜까지 判明된 에디오피아軍의 死者는 五千에 達하고 負傷者는 六千이 넘는다고한다 그리고 伊太利軍의 死傷者는 約五百이라고한다 도로戰爭은 實로 伊에開戰以來 最大激戰이라하나 但이것은 確實치안타한다

英野戰病院爆擊

瑞典赤十字病院爆擊으로 列國의 對伊感情이 一層激化되여잇는此際 十五日伊太利空軍飛行機三臺는 또다시 데시에方面에서 英國赤十字野戰病院에 爆擊을 加하야 死者十四名과 負傷者三十五名을 내엿다고한다 이와가티 伊太利空軍의 不法爆擊은 자못 重大視되여잇다

廣東學生示威

冀察政務委員의 出現을 契機로 北平 天津一帶에서 이러난 學生團의 反自治示威는 마츰내 全國으로 擴大强化되여 到處에서 重大事態를 釀成하고 잇슴으로 南京政府는 마츰내 全國의 敎育首腦者와 學生代表를 南京에 招集하고 蔣介石氏가 親히 訓示까지하게되엿는데 十三日 廣東 中國大學生 約四千名은『打倒帝國主義』를 高唱하면서 國民大學에 殺到하야 同校學生을 糾合하여가지고 反日示威를 이르키려할지음에 突然保安隊五十名과 衝突되여 死者十四名과 負傷者二十六名을 내엇는데 右死傷者의 大部分은 中山大學生이라 한다

日曜氣配

◇株式=議會解散豫想으로 氣迷가깁고 高價는 사기를躊躇하는氣味이나 大勢樂觀되여 買氣潛在하야 氣配는 底强

大新	九一、三〇
新東	一五九、二〇
鐘新	一四七、〇〇
日產	七三、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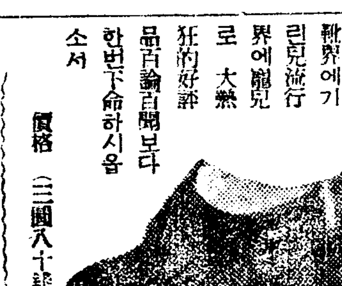
◇期米=買收高殺到를 기다리노라고 硬軟雙方이 다態度消極化하야 躊躇하는 態度이나 氣配는 底堅 九一錢 三〇錢의 豫想
◇綿絲=不變
日本內地天候 晴天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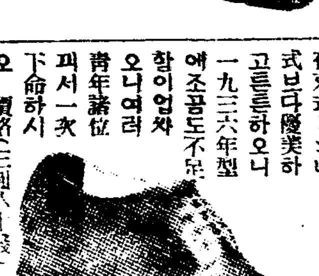
◇獨逸宣傳相 꾀벨스氏는 昨年一年間 失業者가 五十萬이란 數字를 들어 植民地 返還을 要求。
◇하우스大佐의 領土再分割論에 勇氣를 어덧든가。
◇伊太利는 開戰以來 最初의 大激戰을하야 에軍의 死者 五千 負傷者 六千이라고。
◇雨期가 닥처오면 戰爭을 못하겟스니 단兵接戰을 해볼 作定인가。
◇에國은 降伏을 쉽게 안하고 聯盟의 制裁는 날로加重하니 伊國의 斷末魔的 行動도 不得已한 일。
◇사람을 죽일뜻하든 추위 오늘부터 漸次 緩和。
◇추위는 갓지만 설에 떡끄릴 일은 어떠카노。

今日本紙四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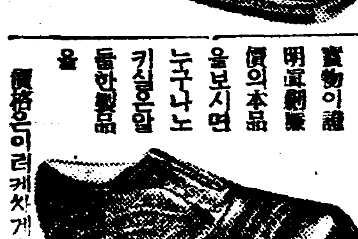
第九十一號 佛式 最高絕美 新時代適合에紳士靴를들내지마시오 이런조흔物件에이러케갑이싼거슨今時初聞일것입니다 事實上 價格(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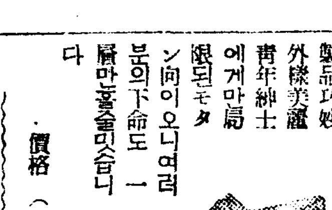
第八十五號 橫ボタン式 人氣焦點 中年紳士에歡迎品 三頭은一層焦點의人氣集中 有斜製보다 一層輕快하고도美麗합니다 一次試用하시오 價格(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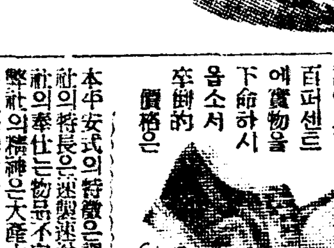
第十號 靈佛式 現代에 適合한靴은 靈佛式일것입니다 特히細皮에人氣焦點 갑시싸다고 물건이나즌줄알면이거슨큰잘못 擴彈的廉價(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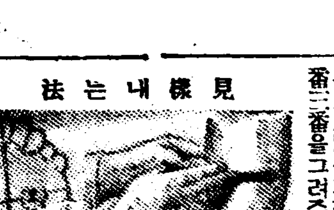
第八十六號 キリン式 本店은洋靴界에기린兒 流行界에寵兒로 大然狂的好評品 百論이一見보다 한번下命하시옵소서 價格(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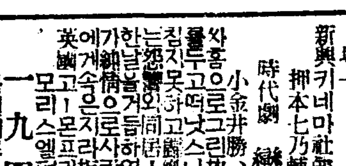
第八十六號 山トンビ式 在來式トンビ式보다優美하고튼튼하오니 一九三六年型에조품도不足함이업사오니 여러青年諸位께서 一次下命하시오 價格(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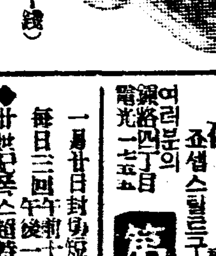
第四十號 靈佛式 實物이證明코 制廉價의本品을보시면 누구나노키싫은 잘튼한製品을 價格은이러케싸게(三圓八十錢)



第二十九號 純佛式 原料優良 製品巧妙 外樣美麗 青年紳士에게만局限된モダン向이오니 여러분의下命도 一層마음에合하십니다 價格(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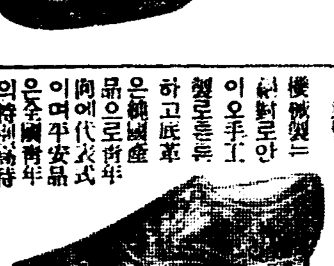
第三十四號 半佛式 尖端的好評이오니 百퍼센트의實物을 下命하시옵소서 奉仕的價格은(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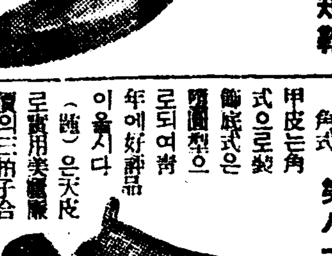
見樣내는法

產業擴張要求 本平安式의特徵은調製의精密品 弊社의特長은迅速運送寸法에適合 弊社의奉仕는物品不向返送任意交換 弊社의精神은大產大賣로
注意 此圖面과갓치鉛筆을곳추세우고周圍를그리고金尺의寸數로一番二番을그려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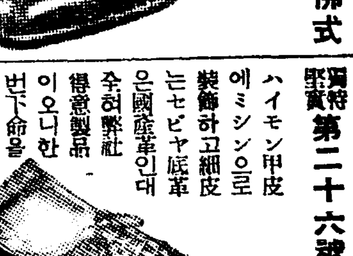
第五號 靈佛式 安價無比 原料는山陽ボックス 製造는高級職工精密製品 特徵은신기하고보기조코 耐久力오래오니 여러분의下命하실好品 그러나價格은 단(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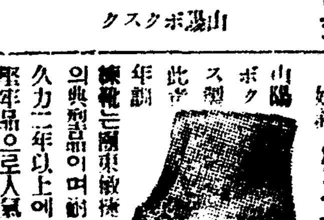
第十六號 佛式複飾式短靴 優美極上 高級職人手工造에 蒲點의紳士用甲皮 美麗底革 好評으로歡迎 자자하고價格의 廉價로下命이태 多時價提供(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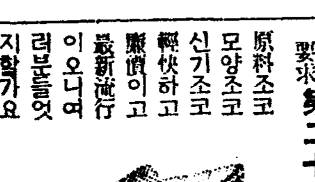
第三十八號 新佛式 實用特價 高級甲皮高級底革일가요? 實用各式實用特品일가요? 여러青年들이여 하로라도속히 平安新佛式을 大產大賣에(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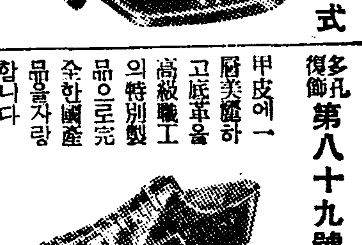
第十一號 新佛式 良好無雙 機械製으로안이오 手工製로튼튼하고 底革은純國產品으로 青年向에代表式이며 平安品은全國青年의特別歡待品이오 奉仕的으로(三圓八十錢)만 山陽ボックス



第八十八號 唯一角式 甲皮는角式으로 製飾底式은頭型에으로되여 青年에好評品이올시다 (題)은天皮로 實用美麗廉價의三拍子合調 實價(三圓八十錢) 山陽黑皮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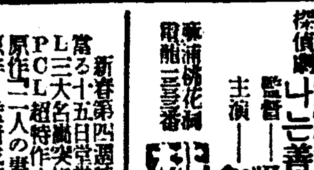


第二十六號 新佛式 獨特堅實 ハイモン甲皮에ミシン으로 裝飾하고細皮는セビヤ底革은 國產革인대 全혀弊社得意製品이오니 한번下命을기다립니다 이得意品을(三圓八十錢)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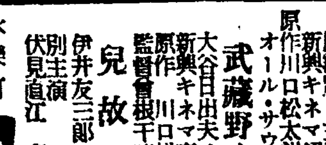


第二十七號 東京式編上靴 白熱好評 山陽ボックス製 此靴는關東軍式의典型品이며 耐久力二年以上에 堅牢品으로人氣焦點의優良品입니다 價格은오직(四圓八十錢) 英靑底

第二十八號 佛式彫刻式短靴 萬人要求 原料조코모양조코 신기조코輕快하고 廉價이고最新流行이오니 여러분들어지갑가요 한번만下命하시오 獨特廉價(三圓八十錢) 上等總黑皮製



第八十九號 スンジヤ式 多孔復飾 甲皮에一層美麗하고 底革을高級職工의特別製品으로 完全한國產品을자랑합니다 (三圓八十錢) 山陽製品



綜合生產과販賣統制는 國富의基礎!
注文=御注文은書信으로하시요
出荷=出荷는便宜上代金引換으로함
送金=振替로先金下付하시는분에게는送料弊社負擔
返送=맛지안어返送하면返金또는更製

平壤府東大院
クローム革 防水靑底革 各種靴鞄類 專門製造元
平安製革社 製靴部
製造元 電話長一三三二 一四二〇番 振替一九四三四番 私書函平壤局八七號

桃花劇場
一月十九日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 土曜日祭日은晝夜二回公開! 每夜七時半 晝十五分始映
一、뉴-스 噴火山의伊太利와에디오피아 一卷
二、콜럼비아社特作全發聲映畫! 喜劇 엉터리拳鬪家 全二卷 主演―도로시구라칸
콜럼비아社全發聲映畫! 喜劇 少年幌馬車 主演―잇기―루니
콜럼비아社全發聲映畫! 喜劇 虫の居所 主演―레온・에롤
◇마기노特作現代劇 悲劇 歡樂의그림자 全七卷 監督―稻葉蛟児 主演―砂田駒子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劇 나는善人이다 全九卷 監督―에드워드・로 主演―一人二役

中央館 永樂町 電本三二五
新春第四週特別封切 當る十五日常設大公開 新興PCL三大名篇突如諸彦に捧ぐる!!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二人の妻』より 妻よ薔薇のやうに 原作 中野實氏 監督 成瀨巳喜男 千葉早智子、伊藤智子、英百合子、大川平八郎、丸山定夫。
新興キネマ超弩級時代劇 原作 川口松太郎 監督 押本七之輔 オール・サウンド版 武藏野くづれ 大谷日出夫、乃松三津枝主演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原作 川口松太郎 脚色 陶山密 監督 曾根千晴 オール・トーキー 兒故の春 伊井友三郎(東都劇壇の雄)特別主演 伏見直江 高津慶子 共演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一八三
一月十九日낫부터每日三回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映 大衆料金 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名劇의要素는 이大篇에서! FOX社超特作探偵大活劇全發聲 日本版 사로쿠、홈즈 監督 우이림、K、하와-드
松竹키네마社超特作スポーツ劇 探偵小說은映畫化戰慄篇! 監督 佐佐木恒次郎 新入社山縣隆第一回出演 凱歌の蔭に 江川宇禮雄、逢初夢子、坪內美子、大山健二主演
하-스、나쇼날社特作스포-쯔篇 本壘打王

第一劇場 여러분의劇場 鍾路四丁目 電光一五五
夜襲 조셉스텐버그監督 유니버살特作品
一九四〇年

團成社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九六
一月十九日낫부터三日間特別興行 舊年末特別奉仕週間 每日三回興行 晝間二回 十二時부터 六時까지 夜間七時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新興키네마社特作品을싸운드版 押本七乃輔監督 時代劇 戀慕草鞋 小金井勝、大久保淸子主演
英國고-몬브리티쉬特作全發聲 海洋映畫의白眉! 두사나이와한女子의이야기는 怒濤와싸우는壯烈한 멜로드라마!
◆日活特作映畫 池田保富監督 劍雲薩摩歌 澤田淸、瀧口新太郞、花井蘭子、深水藤子、山本禮三郞主演
◆二十世紀폭스超特作映畫 白衣行進曲 로레타、영、포울스主演
◆콜럼비아特作映畫 八點鐘

酷寒의副産物火災 原因九割이不注意

家內整頓과就寢外出時는 반듯시檢視

非常警戒期는 이때부터!

작금 겨울의 본격적 추위가 엄습하여오자 모진바람과함께 큰불 적은불이 련일 끈힘새 업시 이러나서 소방자동차의 경종소리가 거리를 달아가지 안는날이 업는상태인바 날이 추은탓으로 일반이 불자리의 뒤보살핌을 겨을리하는것이추위에 화재가 자진 큰원인이 된다고한다 불나는 원인은대체로 그구할까지는 사람들의 부주의와 과실에서 이러나는 것이라는데 각자가 충분히주의를 하여간다면 화재의 참해를 면할수가 잇슬것이다 이무서운 불을 미리 막는데는 첫재 무엇보담도 일반집안의 정돈을 잘할필요가 잇다 집안이 지저분하게 어지러우면 어느때 어떠케 성냥가지 하나가 구석에 느러저잇는 휴지로 옮마가서 불이 날는지 모르고 더욱이 부억의 소제가 완전히 되여잇지 안흐면 제일 이로부터 불붓기 쉬운일이다 이러케 집안의 정돈이 화재예방의 최대방법이라는것을 이저서는 안될것이다 또 늘 부억등의 불잇는자리와 집안의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돌아보는것이 매우 필요한일인데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적어도 하로에 한번이상은 돌아보아야 될것이다。 불이 안나도록 하는데는 연통이 파손되여 불이 새지안토록 할것이며 특히 연통이 집 목재와 부터잇지안토록 맨드러야된다 담배깜부기와 성냥꼬투리를 함부로 버리지말고 구들장 얇은 온돌방에 불을 넘우심하게 때지말어야할것이다 부억과 회루의 부근에 불붓기 쉬운것을 두지말고 재를 버릴때 잘 보아야겟고 불붓기쉬운 약품이 잇거든 이를 엄중주의하여야만된다 늘 잠자기전이나 외출할때는 한번식 불자리를 살펴야하고 아히들의 불작난을 엄금해야되며 전긔나 와사등의 고장은 속히 회사에 통지하야 곳처노아야 될것이다

棉花滿載한 貨物車燒失

십칠일아츰일곱시 오십구분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 반야월역(半夜月驛)에서 목화를가득실은 화물차에서 불이 이러나 화물차한채와 및 거기실엇든 목화석근도가량을 태워바리고 여덜시반에 불을잡엇다 원인은 조사중이다

妓生의排斥當코 暴行타留置場에

정든기생에게 배척을당하고 술을먹은후 폭행을하다가 마충내 류치장신세를 지는 얼간선생이 잇다 부내청진동(淸進洞)일백사십사번지 일선(日善)이란데 묵고잇는 광산업 오영호(吳英鎬)(三一)(假名)는 작년오월부터 청진동일백오십륙번지의삼호 기생 리숙자(李淑子)(二九)와 서로 사랑을속삭이여 이래 관계를 계속하여오든바 무어이 부족하엿든지 리숙자는 오영호를 배척하야 차저가도 업다고따고 만나주지안하엿다 이에 분개한 오영호는 십팔일밤 여덜시에 술을만히먹고 리숙자의집에 차저와서 그물을 두다리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빠지게하엿다 배척을당한후로는매일가티 차저가서기생영업도 하지못하게 하는나머지드듸여폭행까지한것으로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우선구류에처하엿다한다

東興對岸에서 土兵團과激戰

一名을逮捕一名銃殺

평북 동흥경찰서 라죽주재소(東興署羅竹駐在所)대안의 토병단이 조선에 들어오려한다는 소식이잇서 동주재소내등(內藤)부장이하 팔명의 경관대가 십팔일오전십일시에 월강하여 장백현십도구강성(長白縣十道溝江城)에서 한명의 괴한을맛나 검문하엿더니 과연토병단의 일파인것을알고 그의말하는대로 토병단잇는곳으로 그근방산중에갓더니 토병정산호(古山好)의일단 칠명이 나타나 발포함으로 약이십분간 교전하여토병한명을 총살하고다시 추격중이다가 그들행방을 찻지못하고동네시경 돌아와다 그리고 먼저붓들엇든 한명은교전중 도주하엿다

天氣豫報

七七四미리의 高氣壓은 中國大陸에잇서서 低氣壓은 朝鮮을거처서 北海道方面으로 低下되여잇다 滿洲、北朝鮮及東岸은晴、慶南은小雪、裏日本은雪、表日本은 日氣가조타 一般으로바람은 弱해지고 치위는 풀렷다

豫報 京城地方 今夜는 日氣가 조흐나 一時小雪이잇슬것 明日同上

京畿道全鑑 今夜와明日도同上

氣溫 昨日 最高零下七度五 最低零下十九度七 今朝 零下十四度六

會寧邑商店에서 煖爐가爆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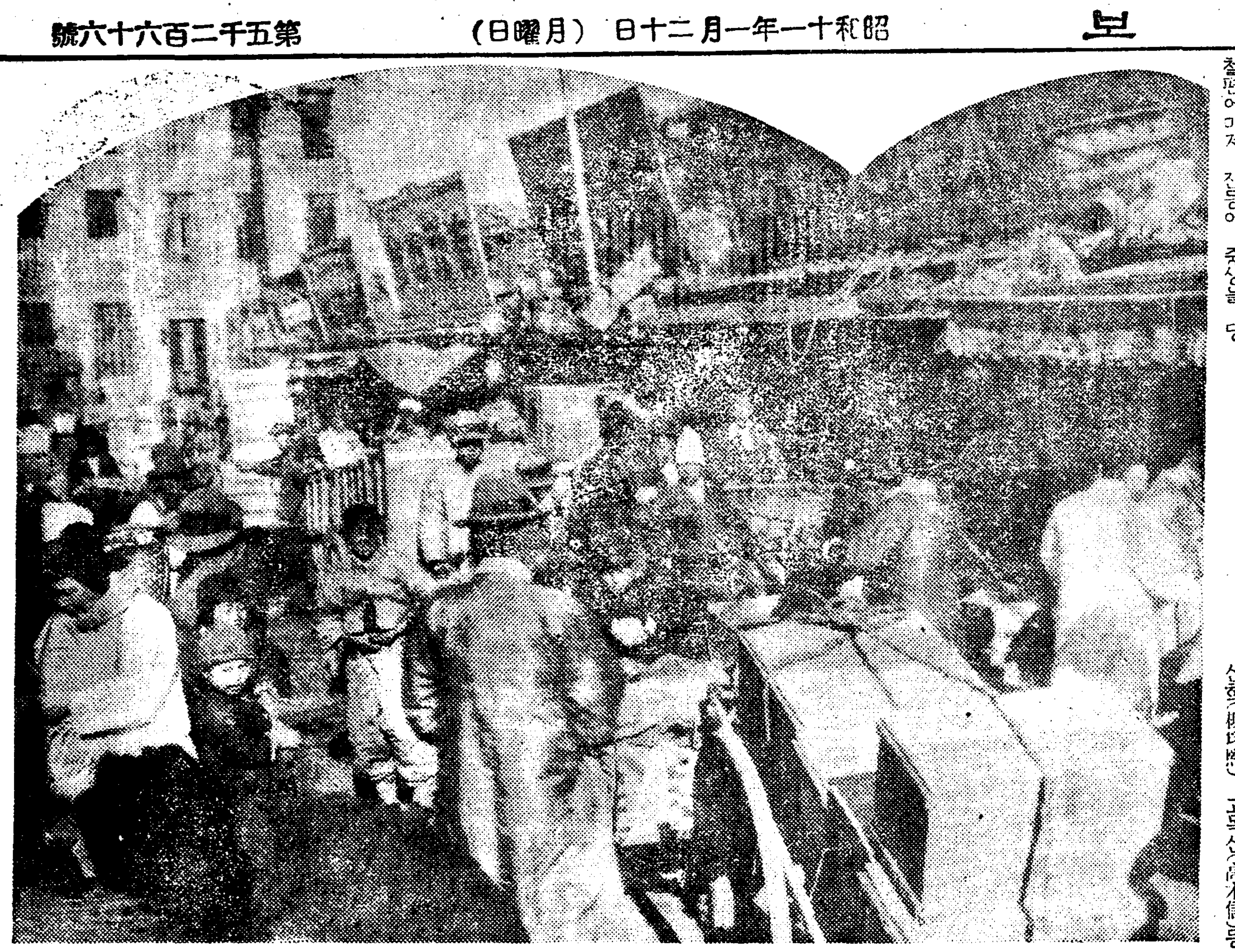
男女六名이重輕傷

【會寧】 회령대정통(會寧大正通)잡화무역상 라윤덕(羅允德)점방에서는 지난 십칠일오후두시반경에 벌것케 단 난로(煖爐)가 별안간 폭발되면서 난로것헤섯든 라윤덕(五〇)과김승렬(金承烈)(二四)이는 우편너분다리에 불덩이가튼 철편이직사하야 중상을당하엿고 방안에서 바느질하고잇든 라윤덕의형수는 파소된철편에마저 잔등에 중상을 당하엿스며 그외에도 경상을 입은 사람은 남자 한명 녀자한명 어린아해가 한명인데 이폭발은 맹렬하야 그점방에서 사간도로인 대정통 건너편에 잇는 금회상점(金會商店)류리문을 부서서 상품에도 손해가 불소하다고한다 원인은 석탄속에 무슨발불이 서껴잇슨것인듯 한데 아직 조사중이라한다

判事를爲始郡屬稅吏 賭博事件公判開廷

罰金處分略式命令을不服하는 被告十七名이出廷

【大邱】 상주(尙州)서발생한소위 신사마작도박사건은 피고박종훈(朴鍾勳)외 십칠명에게 약식명령으로써 금삼십원부터 금일백오십원까지 벌금처분을하엿든바 피고 일동은 정식재판신립이잇서 지난십칠일오후한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일호법정에서 정영검사(靜永檢事)립회와 강등재판장(江藤裁判長)심리로 일회공판이 개정되엿다 피고중에 판사、군속、세무속(稅務屬)읍회의원등 관공리가 중심이엿스므로 방청석은 대만원을 이루엇스며 변호사석은 함승호(咸升鎬)김의균(金宜均)리정혁(李晶爀)김훈채(金訓采)리호정(李浩禎)리우익(李愚益)고욱신(高旭信)류신희(柳坪熙)등제씨가 열석하엿고 피고중은 판사박종훈씨외십칠명이전부 출정하엿다 일자로 박종훈을 위시하야 피고십칠명의 신문이 이섯는데 피고들의 진술과 경찰서의 조서와 전부 상위되는점이 만엇는바 사건내용이 괴상스러운것은 피고중 김재권(金在曜) 리형우(李馨宇) 김상호(金相鎬) 마진영(馬鎭永) 권태주(權泰柱)등은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와 정반대로 마작하엿다는 그일자에 각각 출장 혹은 여행하엿다고 물적증거까지 대엿다고하며 강등재판장은 신중히 피고십칠명의 신문을 마치고 피고들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도록 하라한바 피고대리 변호사로부터 마작을할때에、오락으로 인정하고、음식까지、가티먹은、상주경찰서사법주임최봉달(崔逢達)씨외 팔구명의 신립이 잇슨후에 후칠시에、폐정하엿다 제이회공판은、일수일후에 개정하리라고한다



雜踏한 舊歲暮市場(오늘남대문시장에서)

??對策을품고 尹山溫博士上京

"後事는馬布三悅氏에一任"

當分間滯京할豫定

십팔일오후두시반 평남도 당국자와의 최후회견에잇서 신사참배는 교리상할수업다고 참배거절을 성명하야 드듸여 숭실학교장의 인가를 취소당하는등 시 숭실전문학교 교장까지 취소당하게된 윤산온(尹山溫)박사의 금후태도는 자못일반의 주목을끌고잇는바 윤박사는 평양에 머무러잇슴이 괴로움에선지 또는 그 중에 무슨비책을 품엇든지 그는 곳 평양을떠나 십구일새벽 두시 오십오분 경성역착열차로 서울로와서 부내련지동(蓮池洞)일백삼십이번지 정신녀학교구내 허대전(許大殿)씨의 집에 들엇다 십구일오후박사의 숙소를다진 곳저전긔 허대전씨댁에 박사를 차저가자 박사는 련일피로된후에또밤에 차중에서 잠을일우지 못하야 누어잇는중 이라고직접 면회를 거절하고 대리를 내어보내어 맛나게한다 서울온자명과 이후학교경영관계 기타에 대한질문에 대하야 대언자는박사가서울로온것은 평양에잇스면 차저오는사람도 만켓고자연마음이 가려지지안하야 잘정양할수 업슬것임으로 그간 피로된몸을 우리집에서 며칠간 한가히 정양하라고 온것으로 학무당국과 또 교섭하겟느냐고요? 아마안할것으로 밋습니다 학교는 도당국자가 설립자인 마포삼열(馬布三悅)박사에게 린시로 마터보라고 하엿스니가 마포박사가잘 처리하겟지요 서울서 무슨 회합이 잇느냐고요? 회합은 업슬것입니다하며 대언자역시 만히 말하기를 피하야 대답을호지부지하고말어 자못 만난사람으로하여금 그들의 말못할지안코도 그들의 심중을 읽을만한 태도를 취하고잇섯다

露探偵의公判

【新義州】루차보도한 로서아의 밀정이란 혐의로 평북경찰부의 취조를 밧고 신의주지방법원으로 너머간은 황해도 출생박황(朴黃)(二五)에대한 제일회공판은 지난십칠일오후두시부터 신의주지방법원형사법정에서 국지재판장(菊池裁判長)주심하에 제일회공판이 개정되엿는데 피고는 라진(羅津)항만을 위시하야 약진

慘!酷寒의暴威 産婦三母女凍死

極貧中解産코糊口道理업서

市外永登浦에慘事

【永登浦支局電話】부외 영등포(永登浦)읍신촌 무직리재렬(李在烈)(四五)의 안해홍씨(洪氏)(四二)는 원래몹시 가난하야 끄니에까지 곤난하든바 요사이갑작이 달려들은 살인적추위에 지난십륙일새벽녁 남자를 루산하야 산모와 아애가 한거번에 어려죽고 그엽헤 안저잇든 그의딸 철순(鐵順)(十七)이도 그만 어려죽어세식구의 초상이 낫는데 그의남편 리재렬과 그의어머니 강씨(姜氏)(七二)는 장사지낼것도업서다만시체만처다보고 울고마잇슨지경이나 아모도 동정하는사람도 아직업는터로 그참상은 이로말할수업다 그리고 십칠일새벽에는 로량진(鷺梁津)에서도 박씨(朴氏)라는부인이 어려죽엇다

自働車에折脚

십팔일밤 열시십분 부내수은동(授恩洞)일백십사번지김봉섭(金鳳燮)(二二)은종로삼정목 이십오번지 압헤서 전차길을 건너가다가 때마츰 그곳을달리든 경제이천팔십사호 자동차에 갈리여 바른다리가 분지러저서 방금부민병원에입원치료 중이라한다

轉轍手重傷

지난열엿새날 오후일곱시 십오분 수원(水原)정거장에서 제륙십사호 기차가 도착되여 바꾸어 달려고할때 그 정거장 전철수(轉轍手) 리장홍(李張弘)은 기관차 승강대와화물고ー마사이에 두다리를끼여 중상을밧고 그길로 룡산(龍山)에잇는 철도병원에 데려다가치료를 밧게하는중이다。

自働車轉覆

십구일오전여덜시십분 시내옥인동(玉仁洞)일백칠번지 리갑홍(李甲弘)(二五)이 경제사천오십이호자동차를 운전하고 동대문방면으로부터 광장리(廣壯里)를향하야 달리든도중구의리(九宜里)압헤 이르러 암헤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전신주에 부다처서차체가 전복되엿다 이차에는승객이 네명타고 잇섯스나 다행히 한사람도 부상자는 업섯고차체에약오십원가령의파손이잇섯슬뿐이엿다한다

運動競技

氷上選手權開幕 北國健兒의獨舞臺

五百米에邊君新記錄

【寫眞上은 尹明洙君 下는 邊成厦君】

朝鮮體育會와 東亞日報共同主催의 第十二回全朝鮮氷上選手權大會는 十九日午後零時三十分부터 漢江링크에서 京鄕各地의四十餘選手가 參加한가운데 열리엇다 會長의代理하야 本部委員金圭冕氏의開會辭가잇슨後 昨年度릴레ー優勝團 白狗俱樂部로부터 優勝旗를返還한다음 出場選手中에서 最高齡者인 韓台桓(咸興)君의 宣誓文朗讀이 잇슨後 審判部로부터 緒球洞氏의 注意事項이꼿나자 五百米타임레ー스로부터 競技의幕이 열린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 다음과 가트며 劈頭 五百米레ー스 第十二組의 邊成厦(三務)君과尹明洙兩君이猛烈한 接戰을 演하드니 邊君가슴하나 差로이겨 四十九秒八의 同大會新記錄을 作成하엿다(氣溫零下十六度八、風速西北風五米突)

◇五百米(타임레ー스)

【第一組】1丁龍福(仁川)五九秒

【第二組】1李鐵貨(京城)五八秒

【第三組】1李潤甲(咸興)五七秒

【第五組】1金基滿(義州)五一秒二、2白承哲(晋專)五六秒四

【第六組】1毛麒春(咸興)五三秒八、2李東爀(京城)五八秒五

【第七組】1孫冰煥(晋專)五九秒四

【第八組】1盧弘國(平安)一分八秒四

【第九組】1韓台桓(咸興)五八秒二、2金仁植(京城)一分一秒五

【第十組】1鄭基燕(平壤)五二秒四、2高順昌(三務)五三秒五

【第十一組】1吳仁根(鐵道)五七秒三、2嚴明石(京城)一分五秒

【第十二組】1邊成厦(三務)四九秒八、2尹明洙(江界)四九秒九

【第十三組】1劉仁順(江界)五〇秒九

【第十五組】1金河吉(江界)五三秒2李泰洽(新義州)五六秒

【第十六組】1文壯燮(京城)五九秒四、2黃寅福(京城)五九秒五

【第十七組】1鄭庚彥(新義州)五二秒一

【第十八組】朴性用(徽文)獨走타가넘어져棄權

【第十九組】1白承旭(養正)五二秒七、2金承灝(三務)五六秒

【五百米順位】1邊成厦(三務)、2尹明洙(江界)、3劉仁順(江界)、4金基滿(義州)

◇五千米(타임레ー스)

【第一組】1劉仁順(江界)一〇分一秒五 2白承哲(晋專)一〇分二秒九

【第二組】1尹明洙(江界)九分四七秒五 2金漢集(咸興)一一分五六秒 3金裕七(晋專)一一分二一秒五

【第三組】1金基滿(義州)九分五五秒六 2金河吉(江界)一〇分三二秒五 3朴性用(徽文)一〇分三三秒 4金承灝(三務)一〇分三六秒

【五千米順位】1尹明洙(江界)、2金基滿(義州)、3劉仁順(江界)、4白承哲(晋專)

延專氷上하키 明日、東京向發

氷上하키의覇者 延專하키部一行은 來二十四、五兩日間 東京芝浦링크에서열리는 全日本選手權大會에 參戰코저 明二十日午後三時 京城驛發 部長金永成氏引率下에 東京으로 向할터인데 一行의陣容은다음과갓다

▲監督 金永成

▲코ー취 全有亮

▲主將 [illegible]福

▲選手 尹[illegible]植 康義弘 沈亨燮 宋秉昊 崔完福 金理燮 韓誠 [illegible]福 金景漢

×…上海로 遠征간 延專蹴球團…×

全朝鮮을總括로 氷上聯盟을組織

都市對抗大會를機會로 昨夜、創立委員會서

創立十週年을마지한 京城白狗滑氷俱樂部에서는 氷上朝鮮의 圓滑한 發展을위하야 總括的團體를 組織코저 十八日午後七時부터 百合園에서 創立委員會를開催한바 때마춤都市對抗氷上大會에 出戰하엿든 地方團體로부터 林寬道(江界北鷹俱樂部)朴演夏(新義州鴨江俱樂部)韓台桓(咸興滑氷俱樂部)三代表가 出席한가운데 열리어 다음의 諸般事項을討議한後 名稱은全朝鮮氷上競技聯盟으로하고 以上團體外에도 各地方團體를 勸誘加入키로되엿다

一、各地方加盟團體에 代議員二名을두고 每年一次式 年會를 열고 年中「스케쥴」과 經過를 報告함

一、加盟料金은 每團體五圓으로하고 年會金은 十圓으로함

一、各加盟團體에 登錄費는 六割을 同聯盟에納入함

一、初代의理事로 다음의諸氏를 選擧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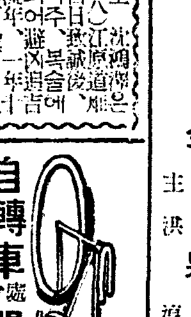
許萬鎬、金龍九、鄭商熙、李永善、李吉用、高鳳梧

朝鮮이난世界的提琴家
桂貞植博士吹込
斷然콜럼비아에서發賣
吹込曲目 수ー브니ー르 타이스의冥想曲

觀相大方家

松岩先生(年六十八) [illegible] 一流의 [illegible] 地方에서 [illegible] 書信은 [illegible] 京城府淸進洞二十五番地

自轉車問屋直賣 信用重視



臨時特價 新車 十五円 五四七円 特典付 東京市日本橋區江戸橋二ノ六 日英商店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 〇四一七番 進呈

謝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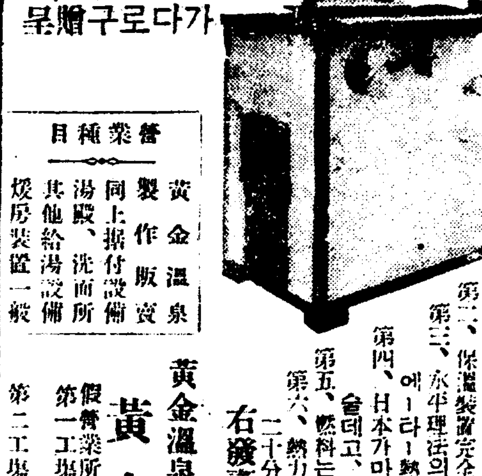
過般 弊館 火災當時에는 諸位의 懇曲한慰問을 奉承하와 感激함을마지안나이다 [illegible] 一月十五日 滿洲奉天十間房 金泉館 主 洪淳文

骨相鑑定 斷易大家 南奎先生來京

[illegible] 南奎先生骨相斷易所

希望者는申込 가다로구贈呈

『家庭의珍寶』特許『黃金溫泉』溫水와瓦斯 電熱로된煖房時代는過去로되엿다



『黃金溫泉』의特長性能

第一、過熱의完全利用으로効果는 普通부억에比하야同一燃料와同一時間燃燒로實로二十倍를가젓다

第二、保溫裝置完全함으로浴更時刻라도入浴自由

第三、水平理法의應用에依하야二層三層에도 給湯自由로다자에ー라ー熱溫充分

第四、日本가마에依한炊飯完全、一般煎物、굽는것、蒸物、숭데고、洋食一般自由

第五、燃料는石炭、코ー크스、薪炭其他무어이나조타

第六、熱力利用完全하야二石의물을沸騰식히는데 僅僅二十分이면된다。

營業種目 黃金溫泉製作販賣 同上据付設備 湯殿、洗面所 其他給湯設備 煖房裝置一般

黃金溫泉(大熊式給湯爐)製作發賣元 黃金溫泉工業所

假營業所 東京市中野區上高田一ノ二三三

第一工場 埼玉縣川口市榮町三丁目 電話川口二三三番

第二工場 東京市澁谷區幡ケ谷本町三ノ五八三

右發賣에一道一店特約販賣店募集

京都帝大化學研究所創製

淋疾

權威잇는銀의內服新藥 바로ー루 パロール

本劑パロール는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敎授理學博士及小田切理學士等의發明完成한研究所內의特許施設인理化學的操作으로써銀을權威잇는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을應用하야 [illegible]

藥價 一円八十錢 三円五十錢 五円五十錢 十円 送料十五錢

片山博士の實驗報告書 無代送呈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かぢ町大通 振替東京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二丁目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勤業○動入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東洋劇場

一月十八日부터 ▲名畵鑑賞週間 晝間午後一時·夜間七時始映

二十世紀폭스社特作日本版 乾杯の唄 全九卷

監督 조ー지화이트

「스캔달스」에서꼿피인花形男女의안타까운사랑의記錄

二十世紀폭스社特作日本版 心の緣野 全十卷

監督 헨리ー킹

主演 자네트ー게이너 라이오넬바리모아

名門? 地位? 財産? 이모든것이다ー 한小作人의딸에 不過한한개의戀人보다는못하엿다

其他뉴ー스

竹添町一ノ 龍光3 三一番

洋劇專門 浪花館

一月十五日より二十一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松竹ニュース

戀愛豪華版 淸水宏監督

上原謙、高杉早苗、吉川滿子、齊藤達雄

一家の人人の描き出されるあの手この手の數數、げにほほえましき豪華版!

一犬塚稔作品 天保安兵衛 林長二郎、岡田嘉子特別出演

優美館

폭스會社超特作全發日本版 聖林三百六十五夜話 조ー지마셜氏監督

都會의悲歌

第二の妻

黃金町 電光三九五

한겨울을 땅속에서 잠만자는 동물들
—인제 봄이되어야 나오지요—

겨울이되여 날세가 점점치워지면 우리 사람들도 솜옷을입는다는둥 털목도리를 두루고외투를입는다는둥 하면서 방에불을더게넛코도 이불속으로 기여드지안습니까? 그와 맛찬가지로 겨울이되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잇는데 와가티 그다지춥지도안코 덥지도안흔 온대(溫帶)라고하는데와 아주 몹시치운 한대(寒帶)라고하는 데에서 사는 즘생들도 겨울동안에 먹고사는방법이 봄철이나여름과는 아주 달으게사는것입니다。

물론 엇더한 즘생이든지운동을 만히할사록 먹는것도 만히먹어야할터인데겨울이되면나무열매나 곡석알갱이갓흔것도 다업서지고 게다가 눈이나싸혀노흐면 즘생들의 먹고살량식이아주똑떠러지는 십입니다 그러니까 엇던 즘생은 땅속이나 바위틈바구니갓흔데 드러가서 사지를 끔작도하지안코 죽은드시 감안이잇습니다 이것을 동물의 동면(冬眠)이라고하는데 아마 겨울동안은 아모운동도하지안코 먹지도안흐니까 잠자는것과 갓다고해서 하는말인가바요。

개고리나 배암갓흔놈은 그저 땅속에 죽은드시 업드러서숨도 잘수지안코 간신히 목숨만붓처간다고하며 곰은 바위틈에끼여서 꿍꿍알키만한답니다。그중에도 엇던놈은 압발톱이 매우기려서 맛치 그것으로 땅이나 삽가래쓰드시땅을깁히파고서 움속에사는사람과갓치 그속에드러가 산답니다、물고기도 겨울동안은 잔다고하나 엇더케해가지고자는지는 아직도 모른다고합니다 미꾸라지나 뱀장어갓흔놈은아마 해금속에 처백혀서 지나겟지요。

童話 귀순이와 간난이
崔秉和

옛날 조선어느임금님때 재상한분이 계시엿습니다。그분에게는 귀순(貴順)이라는 열세살먹은 따님한분이 잇섯습니다。귀순이는 다섯살때 어머니께서도라가신후로는 아버지께서 혼자 귀엽게 길르서서 그야말로 무엇한가지나 부족함이업시 자라낫습니다。

그런데 귀순이는 섬미가 몹시 까다롭고 그우에 악지가여간아니므로 아버지나 또는 시중드는사람은 성가시고 괴롭울때가 한두번이 아니엿습니다。어느날 다른때와가티 악지가나서 넓은방으로 마루로 발을쿵쿵굴르면서 울고불고 야단법석이 낫습니다。

『아! 누구든지와서 내딸의악지를 곳처주는사람이 잇스면 엽마나 고마울가?』하고정승은 눈살을 찝흐리면서 한숨을 쉬고잇스려닛간그때 어듸서인지 선녀가 나타나서『제가 곳처드리지요。염려마십시요』하고 한마듸를남겨놋고 어듸로인지 사라저버렷습니다。선녀는 서울장안을 이곳저곳 도라다니는에 어느행랑뒤스골목에서 귀순이와 나히도 동갑이고얼굴도 쌍동이처럼 똑가튼 계집애를 보앗습니다。그계집애는간난이라고 불르고 어느반찬가게집 아해를 업어주는 계집애엿습니다。

간난이의주인 양주는 인정이 조곰도업는 사람이엿스므로 아츰부터 밤까지 간난이를 부려먹기만햇습니다。그나그뿐입니까 조고만 잘못해도 따리고차고 밥을굶기고 그구박이 여간아니엿습니다。

그날밤이엿습니다。세상사람은 말할것도업고 풀과나무까지 깁히잠이드른 오밤중에 선녀는 죽은 사람과가티 세상모르고 잡이드른 정승의 귀여운딸 귀순이와 반찬가게에서 구박을 밧는 간난이를 아모도모르게 박구어 노앗습니다。귀순이도 간난이도 조곰도 알리가 업습니다。

날이 점점 밝어와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해빗이 누구의방에나 차저올때엿습니다。귀순이가 눈을떠보닛간 제가날마다자는 방과는 다르고 좁듸 좁고 더러운냄새가 코를찌르는 방일뿐더러 옷을차지려니까 자기옷은업고 간난이가입엇든 다해진 더러운옷이 노여잇섯습니다。

그리하야 귀순이는 몹시 성이나서 밥버릇질을 치고 큰소래로 울엇습니다。그런데암만울고 소리를 질려도 아모도 드려다 보는 사람이잇서야지요 귀순이는 할수업시 다해진옷을 입으려닛간

『이년 식전부터 웨 울고 짜느냐。어서 일어나서 밥을 짓지 안코』하고 주인아씨가 야단야단을치지요 귀순이는 그소리에 성이더볶근나서

『이 거지나입는옷을 누구더러입으란말이야』하고 소리를 질럿습니다。그러닛간 주인아씨가냉큼안나오면 죽여버리겟다고 얼르는바람에 귀순이는 깜작놀나서 헌옷을입고 나왓습니다。

귀순이는 밧갓 가개채로와서 어듸를 보니 집이 좁고더려와서 아츰까지 꿈을꾸고 잇는거와가티 어리둥절하엿습니다。그리고 대관절 엇더케되여서 이러한곳에 와잇게되엿는지、암마생각하야도 그까닭을 몰낫습니다

『이년이 얼이빠젓나。얼는쌀을씨서서 안치지안코』하고 주인아씨가 또소리를질넛지만 귀순이는 무엇을 엇더케해야 조흘지 어리둥절하고 잇스니간 주인아씨는 화가 잔뜩나서 나묵때기로 핵!핵! 때리므로 할수업시 주인아씨가 식히는대로 할수박게 업섯습니다。방과마루를 쓸고훔치고 상도보고 설거지도하고 또그것이 끗나면 가개십부름도하고 틈틈히 어린애도 업어주고 이러케 열심히일하니간 귀순이는허로가 엇더케긴지 몰랏습니다。밤열시나지나서 자기방으로정한 뒷방에가서 두려누을때나 비로소 몸을 편히수게 되는것입니다。

『내가 섬미가고약해서 벌을밧나보다。이제는 결단코 악지를 부리지안켓다。남에게 시중드는것은 퍽 어렵고괴로운일구나。만일 내가 우리집으로간다면 하인들에게 싹싹하게하고 위해주어야하겟다。』

하고 속으로 맹서를하게 되엿습니다。

◇

이곳은 귀순이 집에 와잇는 간난이입니다。아츰에눈을뜨니간 엇더케습니가。지금까지 좁고더러운방과는 달나서 아츰햇발이 환 하게 비처드러왓습니다。그리고 푹신푹신한 이부자리 그엽페는 처음보는 비단옷이 노여잇섯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꿈일까?』

하고 간난이는 눈을 비벼도보고 우서도보앗지만 그것은 꿈이아니고 생시엿습니다。그러자 방문이 사르르 열리드니 안잡자기가 드러와서 옷을입혀 주엇습니다。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맛잇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비단옷을입고 무엇하나 부족함이 업시 아모일도 하는것이업시 그야말로 옛날애기에서나 드른 공주님 가튼 팔자엿습니다。

그러타고 간난이는 제맘대로하거나 악지를부리거나 하지안코 싹싹하고 부드럽게 해주므로 침모 안잡이 하인들은 귀순이와 간난이가 박귀여진것을 조곰도몰르고 엇더케 섬미가 까다롭고 악지가신 악앗씨가 이러케 변하시엿슬가하고 이상스럽게 역이엿습니다。

이말을드르신 아버지는 귀순이를 한번 시험해볼라고 어느날아츰 싸과를 가지고와서 먹으라고 주엇습니다。따님이귀순이가트면 얼골을찡그리고와과를 맛터보기도하고 내던저보기도 할것인데 간난이는아버지가주시는 사과를 공손히바드며 얼골에우숨을 띄우며인사를 드렷습니다

이러케해서 귀순이는 고생을하고 간난이는 호강을하면서 몇칠이지나갓습니다。어느날 정승은 따님이 고생하고잇는 반찬가게압으로 지나가게되엿습니다

그때 아버지를뵈온 귀순이는누덕이헌옷을입은채 박그로뛰여나가서

『아버지、아버지 저입니다。저를 데불고가십시요。인제는 악지를 부리지안코 아버지말슴 잘듯겟습니다』하고 울면서 따라갓지만 아버지께서는 미친거지로만 생각하시고 돈을꺼내서 던저주엇습니다。귀순이는 너무나 야속하고 억울해서、자기방으로 드러와서 실컨울엇습니다。저를 그처럼 귀애하야주시든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바든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모다 자기가 마음이납벗든 까닭이라고 생각하고 뉘웃첫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이더러운반찬가게에서 아츰부터 밤까지빼가부러지도록 일하지안흐면 안되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빼개지는듯하엿습니다。그날밤이엿습니다。선녀는 귀순이의 마음이 착해진것을보고 얼골에 웃음을 띄고 그날밤 귀순이와 간난이가 깁히잠이든때를타서 간난이와 귀순이를 살작 도루박구어 노앗습니다。

날이 밝어서 귀순이가 잠이 깨여보니깐 자기집방에 누어잇슴으로 지금까지꿈을 꾸엇나하고 조와하며 착한아해가 되엿습니다。메칠뒤에 귀순이는 하인을 데불고 이끌목저끌목으로 반찬가게를 차즈러다녓습니다。해질때 어느행랑뒷골에서 자기가고생하든 가게를 차젓습니다。

귀순이는 눈물을씻고 자세히 보니간 이상스럽게도 자기가입엇든 누더기옷을 자기와나히도 갓고 얼골도 똑가튼 계집애가 가개를치고 잇지안켓습니가。

『애! 너에게 무러볼말이잇다너는 이가게집에 오래동안잇섯니』

하고 정답게 무럿습니다。

『그러탄다。요보름동안만 부자집에가서 호강을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와서 고생을하고잇단다』

하고 간난이는 눈물을 흘렷습니다。

『아! 너의고생을잘알앗다 인제는고생을하지말고 네가 꿈에서본 그부자집으로 나와가티 가서살자』하고간난이를데 불고 집으로 도라왓습니다。그리고 피석긴친형제와가티 사이조케 지내면서 세상에서 천대밧고 고생하는아해를맛날때마다 도와주엇습니다。

조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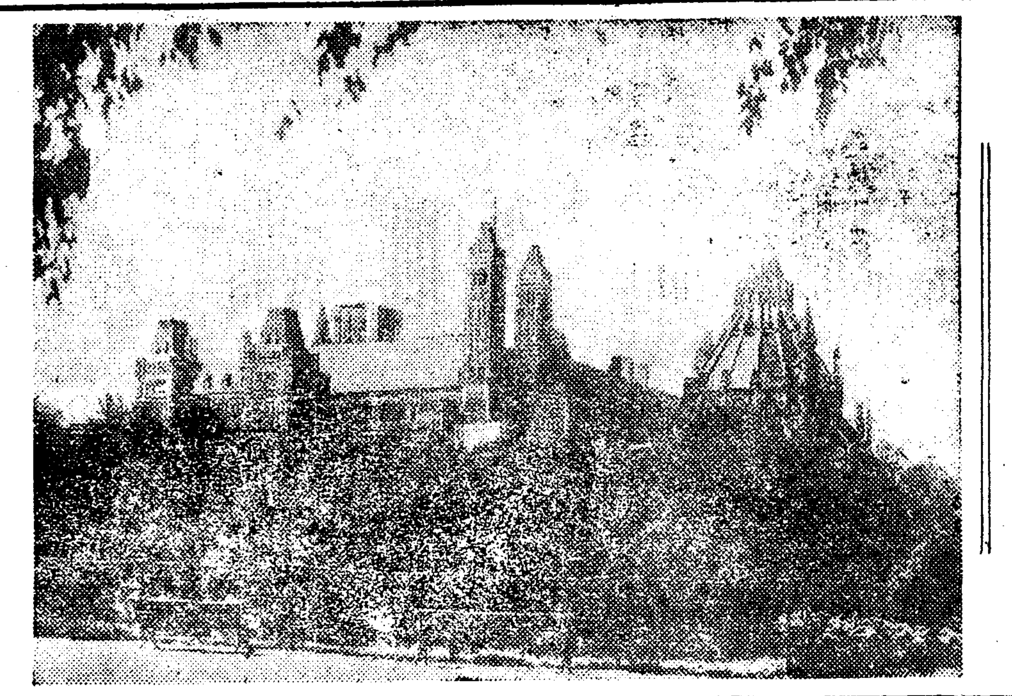
애들아、오늘아침 황룡이네집압 개천에 강아지 내다버린것 보앗니。아마 간밤치위에 어러죽은 모양이드라。누구집개지 몰라도 밥을 잘주지안코、밤쭝에 캥캥거린다고 내쪼첫길래 그랫지。

내생각에는 그개가 밤에쪼껴나서 갈데는업고、몹시 춥기는하고 하니까 주인집 문압헤서 온밤동안 끙끙거리다가 새벽녀에 죽엇슬것갓다。가엽서 참가엽서 못보겟드라。죽을때 주인을 펵 원망 햇슬것이다。애들아 우리는 그죽은개를 동리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끼리 양지쪽 따듯한 둔덕우에 파무더주자。

우리집개들이 우리들한테 따르는것을 생각해보렴。그죽은개가 좀가엽슨가。

(최 창 선)

萬國서울구경
「카나다」의서울 오타와



순돌이의 편지가 또 왓서요。이번에는 카나다의 서울『옷타와』로 구경을 갓다나요。자 이리들 오너라。읽거 들릴께。

『와싱톤서 바로『멕시코』를 갈까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 그러면『카나다』가 빼지지 안니? 서울이란 서울을 다 구경하려고 나선이상 왜 한나라인들 빼노흘리가 잇나? 그래서 북으로 길을 잡아 가지고『카나다』로 왓다。『카나다』는 영국에 딸린 식민지(殖民地)의 하나지만은 모든 것이 버젓하야 조그만 독립국이 붓어지 안탄다。『카나다』의 서울『옷타와』란 곳이지。지금으로부터 칠팔십년전『카나다』가 자치령(自治領)으로 되든때 그당시 영국의 『빅토리아녀왕』이 이『옷타와』를 서울로 뽑아 주엇다나 인구는 불과 십만이라 우리서울보담도 아조 적지만은 깨끗한 주택이며 곱게 장식한 공원이다 자동차만 다니기에 조토록 맨들어 노흔 툭버한 길이며 어데 비교가 될세 업지 그중에서도 『카나다』정부와『옷타와』지에서 합력해서 맨들어노흔것으로 백리나 넘는자동차전용의 도로는 아조유명한것이란말야。본래『옷타와』는『옷타와』강과『리드』라는 강이합처흐르는어룸에 잇는데『옷타와』강편으로 깁다라케 절벽이 되야잇고 그절벽우에는 의사당(議事堂)의커다란 집이 솟아잇다。그리고 의사당이 솟아잇는 언덕으로부터 남쪽이 상점스거리인테 그러케 번화치는 안해도 아조 깨끗한맛이잇다。여괴보내는사진은 바로이우에서 말한그의사당이다。언덕우에 솟은것이 마치무슨성가갓지?

사진은『오타와』지

감기들면엇저나

한배에 자그마치 열일곱남매를 나허노흔『카롤』부인이잡쳐을셋이나 보고도 슬하에 십사남매가 오롱이조롱이다。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개다。카롤부인의 주인이되는『파울부루-쓰』씨는 새해 마지로 그 십사남매를 깡그리 목욕깜긴후 감긔가 들까버 양밀에 담아가지고 난로더메다가 몸을녹히는 모양。자애만흔 카롤부인은 어린새끼들이 병들지 안할까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직히고 안젓지。

라디오

十九日(日曜)

◇午後六時童話劇 산새의 나라 一景 때…늦은겨울 곳…어떤 산속 配役 산새王…金銀星 산새一…文曉燁 同 二…金蘭愛 同·三…李桂福 곰상한少年… 繪話者 外四吾이、까치、뻐꾹이 두루미會 指揮 金相德 伴奏 두루미會伴奏團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講話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鄭 使道南原네려가는데
◇同八時 愁心歌外 吳太石 鼓手 丁元燮 一、愁心歌 二、여금愁心歌 三、公明歌 四、山念佛 五、寧邊歌
◇八時三〇分 古談 노루의중매 金逸淳 任彩鳳 申淸居
◇同九時 洋樂 一、獨唱 (가) 光分…멘델스존作曲 (나)새갓치自由롭게 二、오-토하-프獨奏 榮光…안더손作曲 三、獨唱 바비론가에서…왈드손作曲 四、롬獨奏 村合唱隊 五、獨唱 聖誕歌…아당作曲 獨唱·오-토하-프獨奏·롬獨奏 安大善 피아노伴奏·설리-안대선
◇同一〇時 朝鮮交換放送 滿洲로부터(哈爾賓) 獨唱과三重奏 메쏘소프레노獨唱 나랄리아、바비로빠 一、三重奏빠이올린、피-타!라멘스키 三重奏曲第二番中에서 첼로、게르만보스트렐 안단테 피아노 니-나、보스트렐…멘델스존作曲 二、獨唱 (가) 나무님의얼쓰-포-아作曲 (나) 저녁의祈禱者…구-노作曲 三、三重奏 로만스、글링카作曲

第一放送
◇午後六、〇〇 이야기
◇午後六、二五 (熊) 農村經營의 成功談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一〇 (東) 詩吟
◇同八、二五 (東) 名作朗讀
◇同八、四五 (東) 라듸오·드라마

二十日 (月曜)

◇午後零時五分 日用品時勢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奚琴 金德鎭 大笒 丁元燮 細笛 韓成俊 杖鼓 池龍九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學齡兒童을둔家庭에게(一) 張和順
◇同六時 始初이야기 옷과집 金汶植
◇同六時二五分經濟解說 高永煥
◇同七時三〇分 講演 왕들와近代文明 沈亨弼
◇午後八時 唱劇調 一、短歌楚漢歌 二、唱劇調 赤壁歌 宋萬甲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漁夫詞 安鶴仙 金花香 大笒 金永根
◇同九時 映畵이야기 李憲興 임자업는나룻배 李命萬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午後〇〇五分 이야기
◇同二〇〇時 (東)
◇同六〇〇時(東)少年音樂講座
◇同七時三〇分(東)新年歌舞會始
◇同八時三五分(東)箏曲
◇同八時五五分(東)映畵劇

曆
一月二十日(月)
十二月大丁丑(小)廿六日
辛丑·土·房·建
●祭祀·裁衣·上樑吉日에 吉함
●小寒六日(舊十二月)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000131

國産 카피-白粉
카피 가루분
潑溂한 美의感激 美的香氣 굉장한感觸
이一品이야말노 당신이 늘憧憬하고잇는 化粧美를 한업시表現식힌 世界的逸品이다
個個의性格에 꼭맛는 標準色七色 大型 小型
良品은빗난다 豐香園製品
東京牛込 本舖 田端豐香園

第二期男女學生大募集 (改正學則要二錢)
南大門自動車學校
◆第一募集 (裁判所前) ◆第二募集 (阿峴里) 市外各地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2)〇八六七番 (振替二〇五六)

創業明治卅七年 最古의歷史 最新의機構
正木式製材機

代理店 部業營業工邑野 京城府黃金町三丁目 營業所 電話本局一五〇八番 工場 京城府黃金町三丁目

時計
各國時計多量入荷
破天荒的廉賣
商報進呈 義州 新義州初音町二 三一時計洋行部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廣光 一一五九

金 銀 福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ゼ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はれやか
¥0.31 ¥0.5 ¥1.00

共產軍의大部隊 警察隊와大激戰

雙方모다應援隊가陸續集合

騷亂을極한臨江一帶

【咸興】 십륙일 오전세시경부터 림강현(臨江縣)경찰대와 조우격전중이든 공산군(共產軍)양사령(楊司令)의 일대 삼백여명은의 연 동지 고지대를 점거하고완강히 응전중인바 경찰측 응원대로서 출동할 동현 경찰대제오중대 구십여명이 십칠일오전팔시경 동지로부터 약십리나떠러저잇는 지점에 도착하여 전투에 참가하고 잇는데 공산군의 세력은 지극히 강대하여 경찰측에는 상당한 피해가 잇슬모양이며 경찰측응원대로서 다시 제사、오중대 이백여명과 림강현 신방자(新房子)주둔의 일만수비대도 십륙일 오후 구시경 동현 오도구(五道溝)부근까지 자동차로 급행하얏다고 하며 일방 공산군측에서도 직무현계(直撫縣界)에 잠재중의 진사령(陳司令)의 일대 삼백여명은 십륙일 점차 전국교전중의 양사령(楊司令)일대를 응원하려고 현지로 이동하기시작하여 십팔일아츰에는 두현 오도구오지(五道溝奧地)에 까지 도달하여 목하동지에 잇스면서 경관대와 대치하고잇는데 이주야가 지내도 격전은 끗치지아니하고 쌍방에모다 륙속응원대가 도착하여 그형세는 극히 험악한중에잇다。

그리고 동현삼도구조가점(三道溝趙家店)으로부터 십오킬로나되는지점에도 약칠백명의 공산군이잠재하여 일만군과의 일전을 준비하고잇다하며 이외에도 국두산(國頭山)북방 안국현(安國縣)내두산(乃頭山)방면에도 수백명의 공산군이잇서 긔회만잇스면 압록강과 조선내지로 침입할것만엿보고잇는절박된 상태에잇슴으로 강안각서는 미증유의 긴장을하여 필사적으로경계중하고잇다는데 이러케 근만여명의 공산군대부대가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여 각처에서 경찰대와 대격전을 거듭하고잇슴으로 주민들의 인심은 미증유의동요를일으키고잇다한다

最近의酷寒따라 平壤에流感再燃

家家戶戶에서臥床呻吟으로 學校에는缺席者續出

【平壤】 일긔의오화로 종식되든듯하든 류행성독감은 최근의혹한과가티 다시창궐하여 평양부내각가정에는 환자업는집이업고따라서 학교、은행、회사、관청등에는 결석또는 결근자가 속출하여 교수와사무에 큰지장을일으키고잇는상태이라한다

飮食店購買組 二十五日에開店

【咸興】 함흥시내 삼백여조선인음식점을 포용하고잇는 함흥음식점조합(飮食店組合)에서는 약사년전부터 음식점에서 구매하는 필수물품이전부 중간상인의 손을거처 구매하게됨으로 직접음식점에서 밧는바 손해가 막대함으로 이를방지하는동시 더대량적으로 공동구입하여 조합원의 리익을 도모할생각으로음식점구매조합(飮食店購買組合)을 창립하려고 활동하는바 저간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아직 창립치못하고 내려오든바 작년 사월조수경 동조합 정긔총회때에 드듸여 조합원전부의 간원으로 창립하기로결의되여 이래 동조합간부들이 맹활동을 하여 지난십이월이십륙일 사십여명의 발긔인으로서 창립총회를 열고 다음과가티 역원을 선정한이후에 일주십원(일회불입오원)으로 즉석에서 오백여주가성립되엿는데 제일차로 가장주요한 소비품인 주류(酒類)를 구입하기로되여 오는 이십오일부터 부부정일정목 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업을개시하기로되엿다

組合長 宋錫七 理事 金亨作 常任理事 朴正彬 劉周權

租檢査緩和策으로 受檢組合遂創立

關係組合員七十餘

【鎭南浦】 정조강제검사제 실시로 진남포에는 정조의출회가 두절되여 당업자는물론 각방면의 타격이심함으로 대책을 강구하든중 그의완화책으로 수검조합(受檢組合)을 창립코저 준비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 십팔일오후두시부터 부내에잇는 위탁업자와 중개업자 칠십여명이 진남포중개조합에 모히여 만장일치로 수검조합을 창립하엿다고한다 제작년 십일월정조강제검사제가 실시된후 검사지정지외에서는 무검사품이 드러왓스나 그후검사지정지가 추가되면서진남포에는 리접지인 룡강 강서등시에서까지 무검사품은 일절드러오지못하게되엿고 부내각정미소에서도 무검사품은 일절사지안키로되여 위탁업자와중개업자들은 일조곤난을 당케될뿐아니라 일반상계에 큰 타격을주게되여 결국 검사소당국의량해밋혀 수검조합을 창립하게되엿다는대 이제로부터는 생산자들이 무검사품을가지고라도 검사 지정지를 통과하여 진남포에가지고와서 위탁업자나 중개업자들에게 맛기면 즉시 수검조합을 경유하여 검사를 밧은후 매매하게되리라는바 검사시일이나 모든비용이 생산지에서 검사를밧는것보다 수검조합을 통하는것이 편하게될터임으로 생산자들은 종전과가티 진남포로가지고 오게되리라고하며 수검은 아래와가튼 여섯곳을 지정하엿다하며 당일선거된 임원은 아래와갓다고한다

受檢所設置區域

1、新港 2、米倉構內 3、[illegible] 4、[illegible] 5、[illegible]港構內 6、[illegible]里

役員

組合長 [illegible] 副組合長 [illegible] 監査 [illegible] [illegible]根

二百六十戶貧民에 過歲米一斗式

洪城鄭女史의盛擧

【洪城】 지난십이일 홍성군홍동면 월현리(月峴里)에 거주하는 최병운(崔炳運)의 모친되는 정씨(鄭氏)는 자긔희갑일에 화연을 폐하고 그대신으로 구면일을 당하야 늘근부모와어린자식의 굼주리는 면내극빈한 동포를 동정하야 밥한그릇이나마 지어 과세케하야달라고 홍동면 사무소에 의뢰하여 면내빈민이백칠십호에 매호에 백미일두식 배급하도록 백미이백칠십두를 의탁하엿다는데 동면내는 물론 부근에서 전에보시못하엿든마츰 처음이는 씨의 자선에 대하야 찬성이놉다고 한다

冬旱太甚으로 今年農作憂慮

【韓山】 당지 한산은물론 전도적으로 객년가을부터 가물이심하야 수리조합의 저수지를 필두로 군내 수백고의 저수보(貯水)까지 전부 고갈되여 금년농작을 좌우하는 파종기가 일대문제라하여 일반농민은 자못불안중에 싸이여 잇다한다

女性同友特志

養老院을訪問 金品을傳達

【鎭南浦】 진남포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에서 천주교경영인양로원에 수용되여잇는 오십여명의 불상한 이들에게 구신정을긔하여한 때의따스한 국밥이라도대접코저 회원들이 동정금을 모집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회원들이 성의잇게 모흔돈사십여원으로 백미두가마니와 현금십원을 가지고지난 십팔일 회장 [illegible]씨에게 [illegible] 여동양로원을 방문한후친히 위로하고 금품을 전달하엿다는바 금품을 밧는 오십여명의 로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렷다고하며 양로들의 실생활상태를 처음보는 동우회간부일동도 아지못하는사이에 눈물을 흘려실로 동국적장면을 일우웟다고하며 동우회회장이요 남포치과의원장인 최매지(鎭浦齒科醫院長崔[illegible])씨는 양로들의 치과 치료를 무료로 담당하게다고하며 더욱감격하여 마지안는다고한다

安州高普基金逕至

教育界의恩人車氏 五百圓自進喜捨

【安州】 본래부터 교육사업에뜻을두고 힘쓰는 령변군독산면(寧邊郡獨山面)차홍진(車弘鎭)씨는 안주고보에 긔부금 부족으로 임원십여인이 련명고채한다는 소식을듯고 지난십륙일 긔성회를 방문하야 자진하야 금오백원을 희사하얏다는데 안주고보에 타도인사가 긔부하기는 처음이라고하며 씨는 독산면(獨山面)보동화교를 독단히 경영할뿐만아니라 그외에도 사회사업을위하야 만흔 금액을 희사하얏다는데 일반인사는 씨의특지에칭송자자하다고한다

亡夫의遺志로 三百圓을喜捨

朴女史의盛擧

【安州】 지난십륙일 안주읍건인리(安州邑建仁里)삼륙번지에 주소를둔 박국진(朴國鎭)녀사는 작변에실업자로서 청천강에서 익사하얏든부군 박시호(朴時浩)씨의 유지를밧들러안주고보에 삼백원을 자진 희사하얏다는데 이녀사는 넉넉지못한 살림에 어린자녀일곱명을다리고 근근히 그날그날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가티 교육사업에 자진하야 희사하는데는 일반인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고한다

冬旱에酷寒繼續 飮料水의大飢饉

百里길元山에가서길어다먹어

—新高山住民의恐慌—

【安邊】 함남안변지방에는 겨울철에 잡아들어서는 해가바귀이도록 눈은조금도내리지안코 모진추위가계속되여 근간에는 평균령하삼십도를 상하하고잇기때문에 소맥(小麥)과마늘(蒜)등속이 만히얼어죽어서 일반농가에는 매우수운(愁雲)에잠기여잇는현상인데 설상가상으로 그우에 독감(毒感)까지 성히류행되고잇다하며 더욱이 위익면신고산(衛益面新高山)등지에는 눈이내리지안흔까닭으로 음료수가전연고갈되여 수도는 얼어부터잇슬뿐임으로 몃칠동안은 삼방(三防)등지에서 물을길어다사용하든바 그곳조차 절핍되여서 지난팔일부터는 백리나되는 원산에까지가서 물을긔차에다 실어다가 사용케되엿슴으로일반은 매우 우려중이라고한다

驛構內에서 爆藥을窃取

【平壤】 십칠일오후열시에 평양역에도착한 일백이십칠호 화물차에는다이나마이트(爆藥)이만이천개를 실어잇섯는데 화차의 봉인(封印)이 업서진것을 감시가발견조사 한결과 그중삼십개를 도란당한것이 판명되여 평양서에 급보하고 대소동을 일으켯섯스나 이날오전열시경에 대수사를 한결과 철도「그라운드」부근에서 발견하엿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절취를햇스며 범인이 누구인지 방금맹수사중이라한다

檢査苛酷으로 穀商休業狀態

【孟中里】 맹중리는현미(玄米)와 가마니생산으로 서선에서 굴지하는지방인바 방곡성왕긔에림하야 검사문제가 심하므로 곡물업자들은 휴업상태에 빠젓스며 농가의 부업으로 유일한가마니생산에도 려년에비하야 매시장에 일만여매이상이든것이 불과이백매도 생산이못된다고 한다 그리고 각공장에 이백여명의 종업원과 인부들은 직업을 일코가두에서 방황하게되엿스며 가마니를 짜서그날그날의 생계를하든 빈농가의사활문제에 림하엿다고한다

共販割戾金廢止로 生產加工業者大打擊

漁組聯合會에對한怨聲

【仁川】 경긔도어업조합련합회가창립되야 인천수산시장을 위임 경영케되자 금년부터는 건하(乾蝦)에대하야 공동판매하는 것은 종래에조합에서 칠부의수수료를바다 년말에 삼부내지삼부오리의 할려금(割戾金)을 주든것을 련합회가 창립되면서부터 할려금을 폐지케되얏다 이리하야 일반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큰타격을주어 그원성이놉흘뿐아니라 조합원에한하야서는 억울하나마 그규측대로 공판(共販)을 이행하겟거니와 조합원이외는 전부축접수이축하게되겟슴으로 인천의 중개업자가 또한 큰타격을밧게되리라하야 관계각방면의 원성이 놉흘뿐 아니라 련합회의금후처사가 가장주목처라한다

流氷에遭難되여 定期船『梅丸』漂流

乘客三十名은僅僅救助나 乘務員의生死憂慮

【鎭南浦】 지난 십륙일 진남포긔선회사(汽船會社)에서 대안항해도 저도(猪島)로가는 정긔선매환(梅丸)에다가 승객 삼십명을 실고 진남포를 출발하엿는데 심한류빙으로 배는 직행하지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하여 약삼십분이면 도착될 배가 십칠일까지 도착되지안허 삼십명 승객들의 생사가 우려되든바 십칠일 오후세시경에야 겨우 저도 연안에 배를 대이고 승객들은 겨우 어름을타고 상륙하엿스나 선장김용수(金用守)외 이하 선원다섯명은 배에서 내리지못하고 십팔일오전열시반까지 류빙과가티 표류중이라는바 류빙이 점점심하여 구조선도 갈수업는현상임으로 그들의 생명이 매우 념려된다고한다

養正軍戰勢不振 凱歌는崇商陣에

京平中等籠球終幕

【平壤特派員金勝燁發信】 十八萬平壤府民의 熱狂的歡迎裡에서開幕된 第二回京平中等籠球 對抗戰은 第一日에 遠來의養正高普軍慘敗하엿슴으로 第二日인十八日에는 期於코前日의 慘敗를雪辱코저 最初부터 緊張한場面을보히면서 對戰햇고 이와反面에 崇商軍亦是連勝을 期하여慎重한策戰으로 應酬하여 熱戰又熱戰이 展開되여 그야말로 火花를날니엇다

前日보다도 더만흔 四千觀衆은 選手들의 飛鳥가튼 活躍과 拍子맛초아 興奮、感激이同時에 爆發하여 感激이넘치는 場面이 反復되엿다

그러나 根本的技術의差가 만허기때문에 養正軍再敗의苦盃를 免치못하게되여 三十八對十八의 大差로 凱歌는 다시崇商軍의陣頭에 올니어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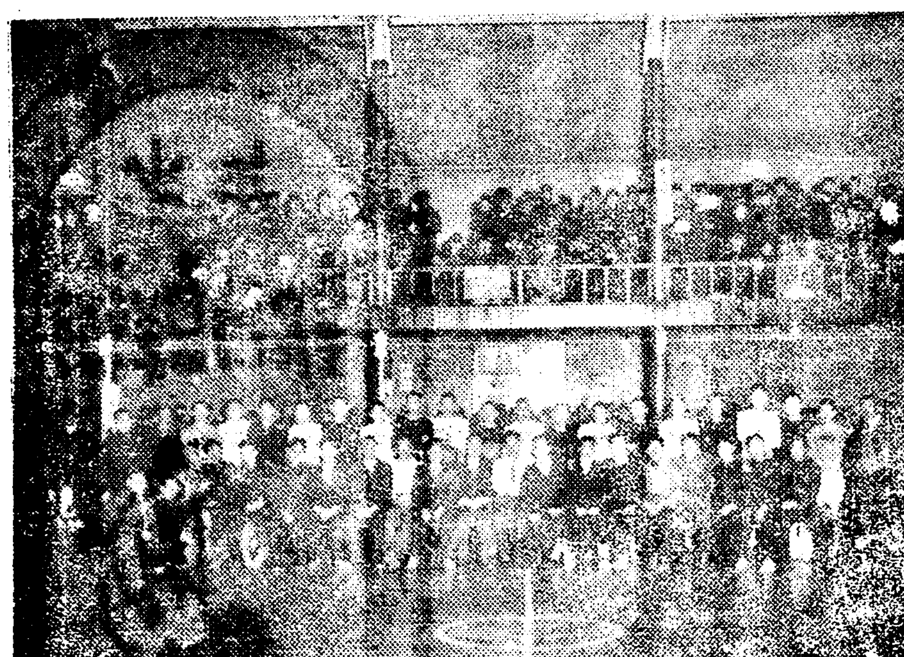
이리하여 意味깁흔 第二回京平中等對抗戰은 午後十時에 圓滿한雰圍氣가운데서幕을다치엇다

그런데 이날의戰跡은 다음과가트며 養正軍은 十九日午後三時十三分發列車로 崇專、崇商籠球團員의餞送裡에서歸途에올낫다

崇商35 {19-9, 16-9} 18養正

崇商對養正戰은 同午後九時四分부터 車載鎰、羅淳寬兩氏審判아래 開戰한바 一分에養正軍C張聖壽의零·突으로 二點을先得하자 一分三十秒에 崇商軍C趙得俊의 妙投로 2-2 二分에다시 RF李禧國 自由投를 利하여 3-2 崇商軍리-드 戰勢는더욱더욱 白熱化하드니 三分에養正軍RF金寧元의 쩜프숏 그러고 뒤니어 C張聖壽의 妙投가 功을이르워6-3 養正軍리-드한체 五分間은 一進一退 得點업더니 八分에崇商C趙得俊의 妙投로 6-5 間迫 다시三分間을 꼿을 날리는激戰을 演다가 十一分에崇商RG石道順의로숏으로 7-6 다시리-드 繼續하여 十四分十五分 十六分에連功12-6 斷然하자 養正軍作戰變更그리하야 十八分에 RG韓世一의쩜프숏으로12-8 十九分부터崇商軍猛襲드니 C趙得俊連二次妙投成功 養正軍은 自由投로 一點을取하야 16-9 後半에드러 赤崇商軍 猛襲드니 三十秒에 RF李禧國의 쩜프숏으로 18-9 三分에 養正RF金寧元의 롱숏으로 18-11 六分에 崇商軍 RF李禧國連二次쩜프숏과 C趙得俊君의 自由投로 42-2十一分까지 서로得點업다가 養正軍申宗淳의 롱숏으로24-16 이에崇商軍 主將金聖鎬 드러와作戰을 變更하고 本格的實力을發揮하야 超中等級의 快技妙技를續發드니 十三分 十四分 十六分 十七分無人之境을 活步하드시 連切37-16 十八分에 養正軍RF金寧元君의 妙投로32-16 十九分에 崇高 朴榮大君의 롱숏으로 35-16最后 十秒를 남기고 養正 方元淳君의 妙投 二點을 得한채 타임옵되여 決局 三十五對十八로崇商軍 快勝

反	前	後	【養正軍】		【崇高軍】	前	後	反
3	2	4	金寧元	F	李禧國	3	10	0
2	0	1	鄭奭燮	F	朴榮大	2	4	2
2	5	0	張聖壽	C	趙得俊	6	5	1
0	2	0	韓世一	G	石道順	2	0	1
0	0	2	方元淳	G	昌安讓	0	0	0
2	0	0	白南燮	G	金聖鎬	0	6	0
0	0	2	申宗淳	G				
9	9	9				13	25	4



◇寫眞은 京平籠球戰의 兩軍과 役員들의 紀念撮影

黃海道內昨年中 農產差押九七件

比前年七十五件減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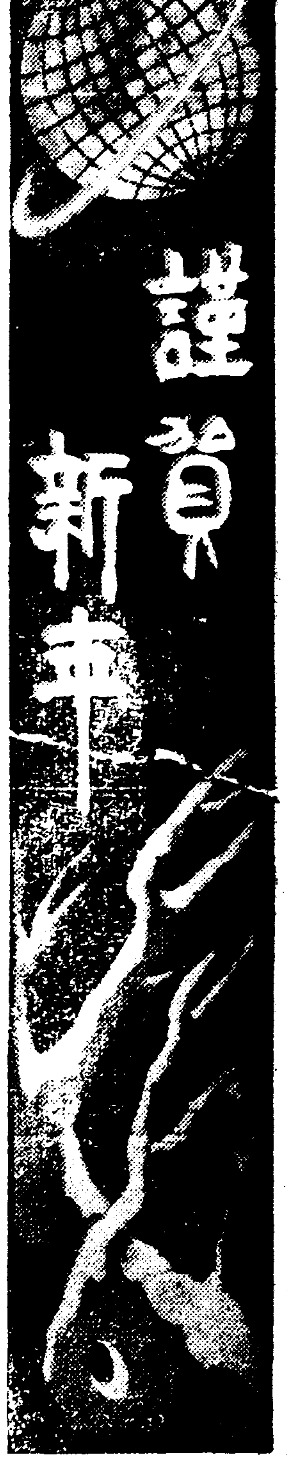
【海州】 작년일년동안에 황해도내에서 재판소를 통하야 행사된 농작물차압(農作物差押)건수는 구십칠건인바 그내역을보면 다음과갓다

海州地方法院管內 一六件
同 松禾支廳管內 三二件
同 沙里院支廳管內 一三件
同 瑞興支廳管內 三六件
計 九七件

그런데 그전년도의통계일백칠십이건에 비하면 칠십오건이나 감소되엿는데 그원인으로서는 려가지를 들수잇스나 주로 곡가(穀價)고등에의한 농촌경긔가 양호하탓이라한다

咸興藥令市 二十萬圓賣上

【咸興】 지난해 십이월이일부터 동삼십일일까지 일개월간 성황으로 끗을마친 제이회함흥약령시(藥令市)의 총매매고는 이십만원을 초과하엿다는데 전년보다 약오만원의증가를보엿다한다



青山

忠北青山市場 甲種朝鮮料理 明月館 主 尹鳳壎

沃川郡 青城面協議員 全月龍

沃川郡 青山面職員一同

沃川郡青山面三方里 李鴻雨

沃川郡青城面 職員一同

沃川郡 青城面協議員 徐志永

沃川郡青城面山桂里 全在衡

忠北永同通路青山市場 綢緞布木 各種雜貨 海陸物產 委託販賣 永昌商店 主 尹鉉重

忠北青山市場 綢緞布木 各種雜貨 陳在春商店

青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忠北青山市場 綢緞布木 日鮮雜貨 各種ゴム靴 石油各種 委託販賣 朴喜俊商店 電略(ボク)又ハ(박)

沃川郡青山 文廟直員 辛英根

沃川郡青城面和城里 全月景

京釜線永同驛青山市 海陸物產 果物雜貨 委託販賣 永興商店 主 鄭完浚

沃川郡青山郡禮谷里 具濟三

忠北青山市場 綢緞布木商 共業社

京釜線永同驛前青山市 綢緞布木 各種雜貨 順化商店 主 洪順化

沃川郡青城面小西里 宋在晚

沃川郡青山面禮谷里 朴道鉉

沃川郡青山面禮谷里 具齊忠

忠北青山山市場 朝鮮料理 洗心館 主 安鎭植

忠北青山 裵蘭秀

沃川郡青山面閑谷里 金基玉

沃川郡青山面閑谷里 漢藥種商 主 李秉錫

沃川郡青山面閑谷里 朴相淳

沃川郡青城面小西里 朴鎭完

沃川郡青山面大德里 全鎔奭

沃川郡青城面 山桂酒造場 金敬煥

沃川郡青山面大德里 張白雲

沃川郡青山面大德里 張在根

沃川郡青山面板衙里 朴懿緒

永同郡龍山面 開州牧良書堂 鄭亥龍

青山市場 青山芝內酒造場 主 元貞喜

忠北青山市場 綢緞布木 和洋雜貨 肥料食鹽 우리商會

忠北永同交通青山市場 綢緞布木 各種雜貨 諸種肥料 委託販賣 三興商會 電略(サン)又ハ(삼)

沃川郡青山面禮谷里 具聚祜

沃川郡青山面明時里 山野月明製藥所 朴貞夏

營口

營口縣田莊台 東興商店 李起舜

營口北本街 新築開業 上下層客室二十餘間沐浴湯設備 平安旅館 主 金弘祺 電話長一一八二番

營口北本街 朝鮮料理元祖 平安食道園 名唱 紹舉道 綿歸道 電話長一一八二番

營口普通學校 閔常基

營口市南本街 東一洋行 黃濟龍 電話七一一番

營口市南本街 泰安旅館 主 李之貞

營口新市街南本街 時計眼鏡販賣修繕 仁泰時計店 電話六〇七番 本店新義州眞砂町五丁目

營口新市街北本街 鮮·滿洋行 劉龍雲

營口新市街 福榮樓 電話七〇九番

營口田莊台 益壽醫院 中漢奎

營口縣西長甸子 西塘農場 方中鎭

海城縣老爺堡 新興學院

營口新市街北本街 院長 朴三龍

營口新市街北本街 信昌旅館 主 張寶善

營口農村中央區 漢藥局 主 金奉柱

營口新市北本街 朝日理髮館 主 崔俊鎬

營口舊市街大平康里 金井洋服行 主 裵享稷

營口新街北本町街 平壤冷麵屋 主 姜淵權 電二七六號

營口新市街北本街 日用雜貨 綢緞布木 日新商店 主 金大運

營口青棚街 農具、紡織機 臥織機各種 卓見洋行 電四六三番

嶺美

(計) 加盟店 鐵道貨物取扱 並玄米製造業 (タ)大昌商會

(共)共盛荷 主運輸組 主 邊榮道 電略マルキヨ又ハ공 私書函第五號

印刷株式會社 太宗社 社長 金長伊 私書函嶺美六號 電話五番 振替口座京城七七四九

機械工具商 金剛機械店 金處三 金戊得

二嘉水利組合 金泰浩 長岡莞浩 尹宰輔 安成穡 蔡原義夫 徐成琨 安君宅

兩嘉面 職員一同

蓄音器及レコード ラヂオ前和洋樂器 朝日樂器店 主 姜永俊

콜럼비아特約店 各種蓄音器及レコード 和洋樂器部分品販賣 明信樂器店 姜孝生

⊙朝鮮運送株式會社 嶺美代行營業所

各種製材石灰 セメント·ノリ·スサ販賣 瑞熏商會支店 崔載潑

嶺美公立普通學校長 劉雲秀

春華堂時計店 文成一

各種衣服 和洋家具 門子製作 博川木工所 卓日亨

西鮮合電嶺美變電所 韓國淵

西鮮合電嶺美詰所 李仁烈

(共)共昌運送店 貨物自轉車部 主 鄭英鎬

壽長醫院 院長 崔龍善

嶺美醫院 院長 方承國

三和精米所

食料雜貨 振昌商店 主 尹起浩